

그들의 수명은 자기다움을 유지하되, 고객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얼마나 부지런히 변화를 지속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. 줄을 서야 할 만큼 화제가 되는 곳, 예약이 힘든 음식점, 대금을 지불하고도 몇 달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다 마찬가지로 아닐까?

포르쉐Porsche 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은 “Change it, but do not change it”이야. 껍질은 끊임없이 바뀌되 포르쉐다움은 지키라는 거지. 이 정신을 잊지 말렴.